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98期(2026.07.10) WWW.MINGHUI.ORG

한글판 1062호 minghui.or.kr



▲ 7월 4일, 캘리포니아 파룬궁수련자들은 미국 서부 최대 규모의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인 헌팅턴비치(Huntington Beach)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주요 내용

【해 외】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연방의원들 명혜망에 축사 전달

【해 외】 파리 눈 온 뒤의 재회, 한 중국 유학생의 5년간의 심리 변화

【중 국】 산둥성 샤오위진, 장아이메이 부부 부당한 형 선고받아

【수 련】 초기에 밍후이왕에 접촉한 경험을 회상하다

〈목차〉

■ 해외종합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연방의원들 명혜망에 축하 전달	3
미국 건국 250주년 맞아 미 서부 최대 퍼레이드에 모습 드러낸 파룬 궁	4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6
파리 눈 온 뒤의 재회, 한 중국 유학생의 5년간의 심리 변화	15

■ 중국소식

산둥성 샤오위쥘, 장아이메이 부부 부당한 형 선고받아	23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27

■ 수련교류

초기에 밍후이왕에 접속한 경험을 회상하다	30
수련생의 연금 지급이 중단된 것을 보고 든 생각	33
일부 동영상에 대한 당부	38
다른 공간에서 본 게임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면	40
지린성 여자 감옥의 박해 수법을 읽은 소감	45
법 속에서 정념이 생겨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해체하다	48
수련에 대한 나의 체득	58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연방의원들 명혜망에 축하 전달

[명혜망] 2026년 7월 4일은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일이다. 공화당 소속 토드 영 연방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팻 라이언 연방 하원의원은 명혜망에 보낸 축하에서, 미국 건국 250주년을 축하하며 파룬궁수련자의 신앙 자유를 보호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토드 영 연방 상원의원은 명혜망에 보낸 축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존엄성을 지니며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아갈 자유를 누린다는 원칙 위에 세워졌습니다. 종교의 자유, 인권, 법치를 포함한 이러한 가치관은 상원에서 제 활동을 항상 이끌어왔으며, 여기에는 제가 ‘파룬궁 보호법’을 지지하고 인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공산당(중공)에 책임을 묻도록 추진한 것도 포함됩니다.”

“의회는 중공의 인권 침해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폭로하고 제재해야 하며, 중공의 표적이 된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중공이 미국 본토에서 위협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억제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어떠한 외국의 권위주의 정권도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원칙을 미국 영토에서 훼손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포함해, 미국의 핵심 가치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팻 라이언 연방 하원의원은 명혜망에 보낸 축하에서 다음과 같

이 말했다. “저는 사람들이 박해받을 걱정 없이 종교적 신앙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해, 미국의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참전한 바 있습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축하하는 이때, 우리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구상했던 각종 자유를 수호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저는 ‘파룬궁 보호법’을 공동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매일 파룬궁수련자들과 함께 서서 중공의 박해를 반대할 것입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 맞아 미 서부 최대 퍼레이드에 모습 드러낸 파룬궁

[명혜망] 7월 4일(토요일) 캘리포니아 서핑 명소인 헌팅턴 비치(Huntington Beach)는 활기가 넘쳤고 수십만 명의 관중이 거리에 모여 미 서부 최대 규모의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를 관람하며 미국 건국 250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옛 장수 복장을 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천국(天國)악단이 모습을 드러내자 기세가 웅장한 대열에 현장 관중들은 연신 환호를 보냈다.

토요일 이른 아침 헌팅턴 비치를 따라 굽이진 수 킬로미터의 해안 도로 양옆은 퍼레이드를 관람하려는 인파로 가득 찼고 바라 보이는 곳마다 미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며 끝없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국기를 흔들며 미국을 축복했고 자유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도 표현했다.

1776년 7월 4일에 통과된 ‘독립선언서’는 미국의 탄생을 알렸

을 뿐만 아니라 ‘천부인권’이라는 미국의 가치를 확립했는데 그중에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유가 포함돼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신앙 단체인 파룬따파수련자들로 구성된 대열은 연도 관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수련자들은 미국 각 민족 시민들과 함께 자유를 축하하며 신앙과 전통 가치관을 공유했다.

현지 오랜 주민 셰리(Sherry)는 말했다. “매년 파룬궁수련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기쁩니다. 신앙 역시 미국의 초석입니다. 저는 꽃차에 적힌 ‘미국에 신의 축복이 있기를(God bless America)’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어를 특히 좋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으며 또한 공유하는 ‘진선인’ 이념도 모두 매우 훌륭한데 이는 모두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캘리포니아 제36지구 주 상원의원 토니 스트릭랜드(Tony Strickland)는 신앙을 수호하려는 파룬궁수련자들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그는 신앙의 자유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며 침해받아서 안 된다고 생각했다.

스트릭랜드는 말했다. “우리는 그러한 (박해) 사조에 단호히 반대하며 동시에 자유와 헌법, 그리고 이 나라의 건국 정신을 확고히 수호할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의 자유, 헌법이 부여한 권리, 그리고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자유야말로 이 나라의 위대한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미국의 25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라고 말했다.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7월 4일,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이했다. 미국 동부를 휩쓴 극심한 폭염의 영향으로 워싱턴 기온이 화씨 102도(섭씨 약 39도)까지 치솟으면서, 당일 오전 10시 반에 미국 수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독립기념일 퍼레이드가 임시 취소됐다고 발표됐다. 퍼레이드에 참가하도록 초청받은 2백 명에 가까운 파룬궁수련자로 구성된 천국악단과 요고팀은 여전히 폭염을 무릅쓰고 국회의사당 인근 현장에서 공연을 펼쳐, 미국 전역에서 온 방문객들의 환영을 받았다. 텍사스주에서 온 다이애나는 줄곧 천국악단의 연주를 지켜봤다.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퍼레이드는 취소됐지만, 그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를 위해 공연을 해줘서 정말 좋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악단의 연주가 저를 매우 기쁘고 즐겁게 해줘서 정말 좋습니다.” 천국악단 단원 중 일부가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에 대한 믿음 때문에 중국공산당(중공)의 박해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이애나는 “너무 유감스럽고 마음이 아픡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미국이 250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바로 미국의 자유라고 말했다. 그녀는 “미국은 절대적으로 그들(파룬궁수련자)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했다.

7월 4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의 레드우드시에서 북가주 최대 규모의 국경일 퍼레이드가 열렸고, 파룬궁수련자들이 다시 한번 초청을 받아 참가해 주최 측, 시장, 시의원 및 관중들의 환영을 받았다. 사회자는 관중들에게 이렇게 소개했다. “지금 지나가는 것은 파룬궁수련자들의 행렬입니다. 파룬궁의 수련 원칙은 ‘진선인’이며 몸과 마음을 닦는 수련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전면 무료입니다. 파룬궁을 수련하면 심신 건강을 증진하고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에너지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사회자는 또 말했다. “오늘 퍼레이드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을 뵙게 돼 매우 기쁩니다. 그들의 현수막에는 ‘세계는 진선인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정말 아름다운 현수막입니다. 그들이 연공할 때 매우 평화로워서 저는 조금의 소리도 내 그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엘머 마르티네스 사발로스 레드우드시 시장은 퍼레이드 현장에서 파룬궁의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참가를 환영하며, 파룬궁수련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강력한 지지와 찬사를 보냈다. 그는 파룬궁 단체가 보여준 모습이야말로 도시 활력의 축소판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우리 커뮤니티의 다양성이 오늘 충분히 드러났습니다”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조쉬 베커 상원의원은 파룬궁수련자들이 오늘 퍼레이드에 참가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제가 방금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꽃차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커뮤니티 단체들을 볼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것은 확실히 매우 개방적인 퍼레이드이며, 각 단체에서 온 훌륭한 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서 기쁩니다.” 파룬궁의 진선인에 대해 언급하며 베커 상원의원은 말했다. “모두가 좋아합니다. 저도 당연히 진실을 좋아하고 선량함을 좋아하며 인내도 좋아합니다. 저는 모두가 이것들을 좋아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훌륭한 가치관으로 보입니다.”

대(大) 시카고 지역의 에번스톤시에서 성대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는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자 단체는 2001년부터 매년 참가해 왔으며,

연도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찬사를 꾸준히 받아왔다. 현수막과 꽃차에 전시된 ‘진선인’ 이념은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이 진상 자료를 받았으며, 적지 않은 관중이 앞다투어 대열을 향해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 메리 로신스키와 가족은 모두 파룬궁수련자들의 꽃차에 끌렸다. 그녀는 감탄하며 말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의 꽃차는 매번 저를 놀라게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 ‘진선인’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원칙입니다. 저는 이 가치관에 매우 동의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7월 4일, 미국이 독립 250주년 기념일을 맞이한 가운데, 텍사스주 휴스턴, 오스틴, 샌안토니오의 일부 파룬궁수련자가 휴스턴의 위성도시인 우들랜즈에서 열린 사우스카운티 독립기념일 퍼레이드(South County Fourth of July Parade)에 참가해 커뮤니티 시민들과 함께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했다. 관중 데이비드(David)는 수년 전에 이미 파룬궁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저는 매년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서 파룬궁을 봅니다. ‘진선인’은 미국의 가치관과 일치합니다!”라고 말했다. 데이비드는 자신에게 중국 출신 친구가 꽤 있으며, 평소에도 중국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천안문 사건이든 파룬궁수련자 박해든 모두 그 진상을 알고 있었다. 이번에 다시 파룬궁을 만난 그는 파룬궁 퍼레이드 대열이 매우 질서정연하고 수련자들의 모습도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여러분의 음악과 복장이 아주 예뻐합니다!”

7월 1일은 캐나다 국경일(Canada Day)로, 캐나다 각 도시에서 제159주년 국경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날 토론토 파룬궁수련자로 구성된 천국악단과 단체 연공 대열은 온타리오주 오토라시 퍼레이드에 초청받아 참가했으며, 파룬궁수련자 대열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을 선사했다. 파룬궁 대열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7월 3일 오전 9시에 공식적으로 시작되며 ‘지구상에서 가장 성대한 야외 행사’인 켈거리 카우보이 축제의 막을 올렸다. 중국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파룬궁 팀은 천국악단을 선두로 백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이 웅장한 기세를 자랑했으며, 푸른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당나라 전통 악단복은 산뜻하고 우아했다. 올해 새롭게 디자인된 꽃차는 앨버타주의 상징인 광활한 밀밭을 배경으로 길게 뻗은 로키산맥을 묘사했고, 푸른 하늘에는 천룡(天龍)이 춤을 추고 연꽃이 피어났으며, 햇빛 아래 빛나는 중문 및 영문 ‘전법륜(轉法輪)’ 책 모형이 눈부셨다. 맨 마지막에 노란색 비단옷을 입고 걷는 요고(腰鼓)팀은 관중에게 경쾌하고 힘찬 북소리를 선사했다. 멀리 호주 멜버른에서 온 그레이엄 허드슨은 말했다. “퍼레이드 팀이 정말 멋지고, ‘진선인’ 이념이 아주 좋으며 모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꽃차에 탄 선녀는 정말 대단하고 제 마음을 매우 평온하게 해줍니다. 뒤에 이어지는 요고 공연도 매력적이고 신선하며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다큐멘터리 ‘언브로큰: 션윈, 꺾이지 않는 용기의 무대(Unbroken: The Untold Story of Shen Yun)’가 프라하 에디슨 필름허브(Edison Filmhub)에서 체코 시사회를 가졌다. 이 영화는 뉴욕에 본부를 둔 션윈예술단에 초점을 맞춘 첫 다큐멘터리로, 션윈 무용수들의 순회공연과 일상적인 훈련 생활을 보여주는 동시에 션윈이 공산주의 이전의 중국 전통문화를 선보인다는 이유로 직면한 도전과 중공의 장기적인 탄압을 폭로했다. 프라하의 많은 문화예술계 인사가 시사회와 이어진 간담회에 참

석했다. 간담회 게스트로는 다니엘 헤르만(Daniel Herman) 전 체코 문화부 장관과 다큐멘터리의 주요 인물인 션원 수석 무용수 황징저우(黃景洲, Piotr Huang)가 포함됐다. 헤르만은 션원 예술가들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신념을 굳건히 지키고 훌륭한 예술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놀라운 끈기에 찬사를 보냈다.

그는 또한 한 친구의 직접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이 친구는 션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중공 당국의 위협을 받았다. “당시 제 친구는 그들에게 오히려 션원을 지지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션원을 계속 지지한다면) 그의 중국 사업은 끝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헤르만은 2016년 문화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TV 인터뷰에서 션원 공연에 대해 생생한 평론을 남긴 바 있다. 여러 차례 공연을 관람한 그는 중공이 왜 그토록 전력을 다해 션원을 방해하는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션원이 정신적 신앙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알메달렌 주간(Almedalen Week)’은 스웨덴의 연례 대형 전통 정치 축제로, 파룬궁수련자들이 스웨덴 각계에 진상을 알리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2026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알메달렌 주간이 고틀란드주의 주도 비스뷔에서 열리며 스웨덴 각 정당 의원과 정치인, 상공업계 인사, 언론, 비정부기구 및 개인은 중세 고도(古都)인 비스뷔에 모여 현재의 각종 사회 이슈를 둘러싸고 세미나, 토론회, 정치 연설 등 행사를 개최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파룬궁수련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소개하고 중공의 박해와 장기적출 등 범죄를 폭로해 다시 한번 스웨덴 정치인과 각계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스웨덴 국회의원이자 대(對)중국 의회간 연합체 소속인 다비드 요세프손은 수련자에게 말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대중을 일깨우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일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되며 저는 알메달렌 주간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파룬궁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통해 일깨움을 얻고 명심하며 중공 정권의 잔혹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스웨덴 시민들에게 진상을 더 널리 전하기 위해 수련자들은 비스뷔 중심 광장과 진상 부스 앞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중공 문제 관련 세미나 개최, 진상 영화 상영 등 형식을 통해 스웨덴 각계 인사와 광범위한 시민들에게 파룬궁을 소개하고 중공의 박해를 폭로했다. 국회의원 니마 골람 알리 포우르는 세미나에 참가한 후 이번에 논의한 의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스웨덴 의회에서 장기적출 제지에 관한 발의안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말했다. “제가 이 의제를 여러 차례 제기한 것은 이러한 인권 침해 행위를 결코 용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일단 발생하면 국제사회, 특히 민주주의 국가는 반드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끔찍한 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매년 6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영국 체셔 구스트리에서는 연례 전통 행사인 구스트리 장미 축제가 열린다. 올해 6월 27일, 장미 축제가 다시 성대하게 열렸다. 행사에 초청된 영국 파룬따파 요고 팀은 정제되고 경쾌한 북소리와 화사한 황금색 의상으로 퍼레이드에서 아름다운 풍경이 됐다. 주민들은 잇달아 박수를 치고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6월 27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온 파룬궁수련자들은 이탈리아 로마 차이나타운의 비토리오 광장에 모여 집회를 열고, 공법을 시연하며, 서명운동을 펼쳐 더 많은 사람이 파룬궁을 알도록 하고, 박해 반대에 동참하게 했다. 로마 시의원이자 로마 제12지구 구의회 부의장, 이탈리아 전진당 로마 지부 부서기 피에트란젤로 마사로는 집회에서 발언하며 지난 16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파룬궁수련자들과 함께 박해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사람은 중공이 파룬따파를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파룬따파 수련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폭력적인 고문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비록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는 “저는 불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소수 집단이 폭력과 학대를 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유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 모두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평생 노력할 것입니다. 비록 더 이상 정치에 몸담지 않게 되더라도, 저는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당일 행사에는 유럽 성공회 교구 주교 루이스 미겔 페레아 카스트리온(Monsignor Luis Miguel Perea Castrillón)과 이탈리아 인권연맹 안토니오 스탄고(Antonio Stango) 위원장도 현장에 참석해 파룬궁수련자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으며, 파룬궁수련자들과 함께 중공의 박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루이스 미겔 페레아 카스트리온 주교는 파룬궁의 ‘진선인’ 원칙에 대해 “이것들은 우리 사회의 기초이므로 박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우리는 이를 옹호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파룬따파의 고난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박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으며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 있고, 특히 우리는 반드시 견지하며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용감하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오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실한 자신이 돼, 말을 할 수 없고 오늘 이곳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의 몸과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여전히 박해받고 있는 이 형제들의 희생과 순교 속에서 거대한 유산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반드시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야 합니다.”

6월 28일, 로마 역사 지구에서 제국 광장 대로까지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졌다. 이어서 ‘진선인’,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들이 이어졌다. 중국 특색이 풍부한 용춤, 사자춤 및 요고 공연, 대열 속 파란색과 금색 의상, 그리고 퍼레이드 대열이 보여주는 평화로움은 수많은 행인의 발걸음을 뜨거운 태양 아래에 멈추게 했고 휴대폰을 꺼내 기념사진을 찍게 했다. 엘리사베타는 이번 퍼레이드 노선 근처에 거주하며 각종 퍼레이드를 자주 본다. 그녀는 파룬궁수련자들의 퍼레이드에 대해 말했다. “규모가 매우 크고 몹시 힘이 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파룬따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고 ‘진선인’에 매우 동의했다. “이런 가치는 환영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일상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참기 힘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파룬따파 수련자는 변함없이 스위스의 ‘2026년 5대륙 문화제’에 참가해 사람들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했다. 많은 관람객이 파룬따파에 질

은 흥미를 보이며 더 깊이 배우기를 희망했다. 많은 아이도 부스에 이끌려 왔고, 그들은 ‘진선인’ 글자가 새겨진 작은 선물을 받았으며, 일부 아이들은 수련자와 함께 제5장 공법인 가부좌를 연마하기도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파룬따파 수련자가 27년간 중국에서 박해받은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서명지에 서명해 박해를 반대했다.

6월 20일, 루마니아 브라쇼브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은 부스를 마련하고 현지 시민들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했다. 제베데이 일가족의 어머니 다나 제베데이는 화학자다. 제베데이 일가족과 많은 사람은 파룬따파의 ‘진선인’ 원칙과 수련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 원칙을 따르는지 알게 됐다. 그들은 이에 깊이 공감하며 파룬궁수련자들을 지지하고 중공의 파룬궁 박해 중지를 촉구하는 청원서에 잇달아 서명했다. 그녀는 말했다. “만약 모두가 이 가치관을 따를 수 있다면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평온해지고 긍정적이 되며 베풀기를 좋아하고 동정심도 풍부해질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이 원칙을 따를 수 있다면 사회는 틀림없이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녀는 파룬따파에 대한 박해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말했다. “이것은 마치 전 인류를 겨냥한 전쟁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파룬따파 수련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며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 파울 제베데이는 ‘진선인’이 전 세계에서 실천돼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국가가 이 세 가지 원칙을 따를 수 있다면 사회 전체가 바뀔 것입니다.”

인도의 파룬궁수련자들은 줄곧 인도의 외진 지역까지 깊숙이 들어가 그곳 주민들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하며, 파룬따파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진선인’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2026년 5월부터 한 인도 파룬궁수련자가 두 달 넘는 시간 동안 인도 나갈랜드주의 주도인 코히마와 다른 두 주요 도시인 코노마와 모코크총을 방문해 현지 주민들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했다. 교사와 교장들은 파룬궁수련자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이고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을 전달해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적극 참여했으며, 수업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평온하고 매력적인 교육 방식은 ‘진선인’의 원칙을 이해하기 쉽고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연공을 한 후 학생들은 더욱 활기차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기술이 급변하는 오늘날, 이런 수련법은 마음의 평온과 신체 건강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파리 눈 온 뒤의 재회, 한 중국 유학생의 5년간의 심리 변화

글/ 프랑스 거주 자원봉사자

[명혜망] “저는 바로 이 일 때문에 당신에게 사과하러 온 겁니다!” 프랑스 파리, 폭설이 막 그친 어느 날 약 30세가량의 중국인 외모를 한 청년이 웃으며 큰 걸음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2026년 새해가 막 지나고 2~3일 전만 해도 여러 곳에서 교통체증이 있었지만 오늘 흰 눈이 녹아 물웅덩이가 되면서 행인들은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눈 녹은 물을 밟으며 걸었다. 내가 몰랐던 것은 이 한마디 사과를 위해 그가 마음속으로 이미 5년을 베풀고 있었다는 것이다.

파리의 브레땅 백화점은 ‘파리 제2의 백화점’이라는 명성과 15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내가 중국 관광객에게 진상을 알리는 장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백화점 길모퉁이에는 관광객이 많지 않았다. 내가 관광객 몇 명에게 진상을 알리고 잠시 서 있었는데 이 청년이 마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다가가 진상을 알리려 했다. 뜻밖에도 그가 먼저 나에게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 저를 분명 모르시겠지만 저는 아주머니가 아주 낮이 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 번 마주친 적이 있거든요.”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혹시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청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주머니, 잘못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일이나 모레 파리를 떠나 다른 지방 도시로 일하러 갑니다. 아주 멀어서 다시 올 기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온 것은 아주머니에게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 청년이 직접 들려준 이야기로 그와 내가 지난 5년간 몇 차례 마주쳤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첫 만남, 오해와 땅에 떨어진 신문

5년 전 저는 중국의 한 대도시에서 프랑스로 유학을 왔습니다. 어느 날 브레땅 백화점을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세계는 진선인(眞·善·忍)이 필요하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패널과 스피커를 세워둔 것을 보았습니다. 한자를 보자마자 아주 신기하게 느껴져 곧장 다가가서 보았더니 알고 보니 파룬궁이었습니다.

‘파룬궁’! 제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저

희에게 주입한 것은 모두 부정적인 내용이었기에 저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진상 신문을 한 부 건네주며 한번 읽어보고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받아서 쓱 보고는 통명스럽게 아주머니 손에 다시 쭈셔 넣으려 했는데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신문이 땅에 떨어졌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쪽을 지나갈 때면 기본적으로 아주머니를 볼 수 있었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을 피해 돌아서 지나갔습니다.

한번은 제가 또 이곳을 지나가게 됐는데 아주머니께서 또 저에게 인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왔죠? 유학 왔나요, 아니면 여행 왔나요?” 저는 속으로 ‘또 당신이네’라고 생각하며 통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몇 마디 나누고 싶어서요. 다 같은 중국인이지만 중국에서는 만나기 어려운데 프랑스에서 이렇게 만났으니 참 인연이네요!”

당시 저는 마음속으로 파룬궁에 반감이 있었기에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루하네요, 재미없어요!” 그러고는 손을 뿌리치고 가버렸습니다.

이 두 번 모두 저는 아주머니에게 태도가 좋지 않았지만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고 자책감도 전혀 없었습니다.

전환점 “염황의 자손은 마르크스·레닌의 자손이 되지 않는다”

이후 몇 번 이곳을 지나가면서 아주머니가 중국인 관광객 몇 명과 아주 즐겁게 대화하는 것을 보았고 아주머니와 관광객이 손을 잡고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사진도 찍는 것을 보았

습니다. 또 가끔은 아주머니가 무리 지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약간의 미안함이 생겼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바로 앞서라 백화점에서 멀지 않아 매일 이곳을 지나갑니다. 작년 여름 제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또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가 먼저 제게 인사하며 중국에서 왔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저는 아주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유학 와서 졸업하고 이미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중국에 있을 때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하면 평안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못 들어봤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붉은 스카프를 매고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과 공산당에 가입하면서 주먹을 쥐고 공산주의를 위해 평생 분투하고 당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선서한 것 말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날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공산주의는 마르크스가 만들어낸 것이고 마르크스는 독일 사탄교 신자예요. 우리는 중화의 자녀이자 염황(炎黃: 중국인의 시조인 염제와 황제)의 자손이니 마땅히 자신을 위해 분투하고 조국을 위해 분투해야 해요. 우리는 마르크스·레닌의 자손이 아니예요. 당신이 그것을 위해 분투한다면 곧 그것의 일원이 되니 탈퇴해야 합니다.”

이런 진상은 저를 아주 놀랍고 흥분하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랬구나!’ 마르크스가 사탄교 신자였다니 여태껏 들어본 적이 없

었습니다! 저는 소년선봉대(소선대)와 공청단 탈퇴에 동의했고 아주머니는 저에게 탈퇴 성명에 쓸 가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당시 아주머니는 또 저에게 ‘9평 공산당’(한글판: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 책 한 권을 주셨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두 번 읽어보았고 이로써 우리가 자신의 조상을 배신하고 서양에서 온 유령과 마르크스라는 이 사탄교도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공산당(중공)은 바로 사이버 종교 조직입니다. 그것은 대규모의 중국 엘리트를 살해했고 중국의 전통문화를 파괴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겪은 3년간의 바이러스 대유행, 이 재난은 중공이 퍼뜨려서 초래된 것입니다. 중공은 세상 사람을 초개나 노예로 여기며 임의로 짓밟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제가 외국으로 유학 올 수 있었던 것을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진상을 들을 수 없고 중공이 선전하는 모든 것은 가짜이며 모두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의문 해소 “여러분은 보수를 받나요?”

청년은 이어서 나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제가 공청단과 소선대를 탈퇴한 그날부터 매일 이곳을 지날 때면 저도 모르게 눈으로 이곳을 한번 훑어보게 됩니다. 파룬궁 아주머니를 보고 싶어요. 특히 중국인이 많은 곳에서는 거의 항상 인파 속에 있는 아주머니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아주머니와 함께 중국인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분이 아주머니 혼자가 아니라 몇 분 더 계신 것 같던데요?”

내가 말했다. “맞아요, 관찰을 아주 잘했네요.”

그가 말했다. “아주머니, 무례를 무릅쓰고 여쭙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이 5년 동안 아주머니가 비바람을 무릅쓰고 고생하시는 것을 보니 정말 쉽지 않으시더군요. 제 경우만 보더라도 처음 아주머니를 뵈었을 때 그런 태도였고 파룬궁을 이해하지 못해 이성을 잃고 대했는데 이런 사람이 틀림없이 아주 많을 겁니다. 아주머니는 원망도 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으시며 이 모든 것을 아주 평온하게 대하셨습니다. 아주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가요? 보수가 있나요?”

그는 또 물었다. “혹시 진상을 알린 사람 수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누가 이렇게 헌신하겠어요?”

내가 말했다. “청년, 멀리 갈 것 없이 나 자신만 말할게요. 매일 내가 이곳에 온다는 건 알죠. 다른 건 차치하고 매달 지하철표를 사는 데만 90유로가 넘게 들어요. 이건 내가 기꺼이 내 지갑에서 꺼내는 겁니다.”

청년은 듣고 나서 마음속으로 충격을 받은 듯 눈빛에 놀라움을 드러냈다.

나는 이어서 그에게 알려주었다. “파룬궁은 불가의 고덕대법(高德大法)이고 파룬궁수련자는 바로 ‘진선인’의 기준에 따라 수련합니다. 장쩌민(江澤氏)이 1억 명에 달하는 사람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두려워해 1999년 7월 20일부터 하늘을 가릴 듯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체포, 가택수색, 고문, 실형 선고를 가했으며 때려서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었고 파룬궁수련자의 장기적 출을 자행했습니다. 중공은 사악한 악마예요. 그것은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이용해 파룬궁을 비방하고 파룬궁에 먹칠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아이들이 파룬궁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 겁니다.”

나는 그에게 더 나아가 설명해주었다. “선악에 응보가 따르는 것은 천리이고 하늘은 중공을 멸망시키려 해요. 당신이 주먹을 쥐고 공산주의를 위해 평생 분투하고 악당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선서했다면 바로 중공의 일원이 된 것이고 하늘이 중공을 멸망시킬 때 당신도 그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부님께서 제자들에게 선량한 중국인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법제자가 세상에 와서 사람을 구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나와서 진상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중공의 사악한 조직에서 탈퇴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대법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삼퇴하여 평안을 지키라고 권하다가 진상을 모르는 사람에게 신고당해 강제노동을 당하고 구금되며 실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법제자는 여전히 굴복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으며 한결같이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합니다. 우리는 보수가 없고 돈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양심에 따라 사람을 구하는 것이며 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현재 이미 4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했습니다. 신이 모두 보고 계시고 신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작별 인사 “명혜망, 전법륜, 기억하겠습니다”

청년이 말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의 이 말씀을 들으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이렇게 길이 안 좋은데도 저는 기필코 아주

머니를 뵈러 와야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분명 오실 줄 알았거든요….”

청년은 또 말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마음속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 여쭙보고 싶었는데 이제 다 됐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파룬궁은 너무 대단합니다. 아주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파룬궁은 고통 속에서 수련하고 고난 속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군요.”

“파룬궁이 행하고 겪은 일들을 글로 써낸다면 그것은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우며 비할 데 없는 훌륭한 각본이자 아주 찬란한 걸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대로 전해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청년의 소감에 고마워요. 감격해서 눈물이 나네요. 아주머니가 진심으로 한마디 할게요. 외국에서는 자유롭게 인터넷을 할 수 있으니 명혜망에 접속해서 대법제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대법서적 ‘전법륜’을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끝없는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면 재난을 피하고 평안을 지킬 수 있다고 잊지 말고 알려주세요.”

청년은 나에게 깍듯이 인사하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명혜망, 전법륜, 기억하겠습니다.”

흰 눈이 녹아 강물이 되면서 이 유학생이 파룬궁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오해도 얼음 녹듯 사라졌다. 그렇게 화창한 날, 우리는 각자 맑은 마음을 품고 손을 흔들며 작별했다!

｜ 중국 소식 ｜

산둥성 샤오위쥘, 장아이메이 부부 부당한 형 선고받아

－ 법률 불소급, 사상 비범죄화 원칙 체계적으로 짓밟혀 －

[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산둥성 린이(臨沂)시 명인(蒙陰)현 탄부(坦埠)진 파룬궁수련자 샤오위쥘(肖玉軍), 장아이메이(張艾梅) 부부가 2025년 6월 부당한 가택수색과 납치, 모함을 당했다. 2026년 1월 13일, 5월 13일, 이들은 이난(沂南)현 법원에서 두 차례 불법 재판을 받았으며, 두 명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사실과 법률에 근거해 충분하고 엄밀하며 반박할 수 없는 무죄 변론을 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이난현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 － 샤오위쥘은 5년 6개월형과 벌금 5만 위안을 부당하게 선고.
- － 장아이메이는 4년 6개월형과 벌금 4만 위안을 부당하게 선고.

부부는 부당한 판결에 불복해 법에 따라 항소했다.

납치 경위: 아무런 합법적 절차 없이 절차가 심각하게 법을 위반

샤오위쥘, 장아이메이 부부는 명인현 탄부진 시탄부(西坦埠)촌에 거주한다. 2025년 7월 22일, 이들은 이난현 공안 인원에게 납치됐다. 당일 정오, 샤오위쥘이 막 일을 끝내고 침대에서 쉬고 있을 때, 사복 경찰 3명이 문도 두드리지 않고, 경찰복도 입지 않았으며, 경찰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은 채, 어떠한 녹음·녹화 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곧장 방 안으로 들어닥쳤다. 소위 ‘수색영장’은 샤오위쥘 앞에서 서둘러 한 번 흔들었을 뿐, 명확히 고지하지도 공식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경찰은 곧바로 그를 강제로 납치했다.

그 후, 경찰은 집으로 되돌아와 장아이메이도 납치했으며 동시에 가택수색을 했다. 가택수색 과정에서 장아이메이 혼자만 현장에 있었는데, 경찰이 물건을 가져갈 때 현장에서 서명하거나 지장을 찍게 하지 않았고, 그녀가 파출소로 끌려간 후에야 강제로 지장을 찍게 했으므로 절차가 완전히 위법했다.

이후 샤오위전은 명인현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고, 장아이메이는 린이시 구치소에 감금됐다.

두 차례 불법 재판: 변호사의 충분한 무죄 변론, 허점투성이인 혐의

2026년 1월 13일, 부부는 이난현 법원에서 처음으로 불법 재판을 받았다. 변호사는 공소인의 혐의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이치와 근거를 갖춰 무죄를 변론했다.

검찰 측의 모든 혐의는 법률에 부합하지 않았다.

- 첫 번째 혐의: 이른바 ‘1997년에 파룬궁 조직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이 혐의 자체는 ‘법률 불소급’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1997년 당시 파룬궁은 완전히 합법이었고, 정부에서도 공개적으로 시민들의 수련을 장려했다.

- 두 번째 혐의: 파룬궁 입장을 견지했다는 것이다. ‘사상 비범죄화’라는 기본 법리에 따르면 신앙 자체는 범죄가 될 수 없다. 기록에 반영된 내용은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

- 세 번째 혐의: 집에서 수색해 낸 파룬궁 물품이라는 것이다. 수량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 이른바 홍보 전단은 오래된 것으로 현실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없으며, 수량도 사실과 다르고, 압수 물품은 샤오위전의 서명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 네 번째 혐의: 이른바 ‘정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검찰 측

은 ‘정황이 특별히 심각함’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증거가 충분하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게다가 사건의 단서는 오직 2024년 8월 이난현 공안국 공마오푸(公茂富)의 신고에서 비롯됐다. 검찰원이 이를 근거로 입건, 체포, 가택수색을 한 것 자체가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형사 사건으로 기소해서는 안 된다. 경찰의 수색 절차는 위법했고, 압수 물품 목록과 감정 절차도 위법했다. 중요 증인인 공마오푸, 장위즈(張玉芝)는 모두 법정에서 출석해 증언하지 않았으며, 장위즈의 이른바 증언은 복사본에 불과해 법적 효력이 없다.

법정에서 샤오위전은 자신을 변호하며 지적했다. “2005년 공안부가 전국적으로 조사해 인정한 14가지 사이버 종교 중에 파룬궁은 없습니다. 양고(兩高,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사법해석은 전인대를 통과하지 않았기에 입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국무원 신문출판총서 2011년 제50호 문건은 파룬궁 서적이 합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차 재판과 부당한 판결

2026년 5월 13일, 부부는 다시 한번 불법 재판을 받았고, 두 명의 변호사는 또다시 충분한 무죄 변론을 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이난현 법원은 6월 22일에 판결문을 내렸다.

- 샤오위전은 5년 6개월형과 벌금 5만 위안을 부당하게 선고받았다.

- 장아이메이는 4년 6개월형과 벌금 4만 위안을 부당하게 선고받았다.

부부는 법에 따라 항소했다.

정의와 양심에 대한 호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진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오늘날, 파룬궁이 무엇인지, 파룬궁수련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공안, 검찰, 법원 인원들의 마음속으로 모를 리 없다.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양심에도 어긋나며, 더 나아가 결국 하늘의 징벌과 인간 세상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박해에 가담한 모든 인원이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공산당(중공)의 순장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속담에 ‘남을 해치는 것은 곧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했다. 오늘날 ‘20년을 거슬러 조사하고, 30년을 거슬러 조사하는’ 것이 어찌 앞수레가 엮어진 것을 보고 경계하는 거울이 아니겠는가? 모르는 척하는 그 사람들은 권력과 돈에 마음이 홀린 것은 아닌가?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승진하고 돈을 버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과 가족에게 재앙을 미치게 할 것이다. 명혜망에 기록된 실제 사례가 수두룩하며 선악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

박해에 가담한 관련 기관 인원 정보는 다음과 같다.

沂南法院审判长 赵成新：0539-3221012

沂南检察院第一检察部 孟庆秀检察官0539-3011918

相关参与迫害的单位人员信息如下：

沂南县检察院

地址：山东省临沂市沂南县澳柯玛大道中段，邮编：276300

电话：0539-3011966、0539-3011929

检察长 王洪松 / 起诉检察官 刘兰奇 / 起诉检察官助理 于方文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산둥성 린이시 파룬궁수련자 지중성(季中勝), 쉬위전(徐玉珍)은 2025년 5월 12일 경찰에게 납치돼 린이시 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감금됐다. 2026년 1월 23일, 그들은 파룬궁수련자 뤼원중(呂文忠)과 함께 란산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지중성은 10년형, 쉬위전은 8년형, 뤼원중은 2년형을 각각 부당하게 선고받았다. 세 사람 모두 항소했지만 란산구 중급법원은 2심 재판을 열지 않고 원심의 억울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026년 5월 하순, 세 명의 파룬궁수련자는 각각 산둥성 감옥과 산둥성 여자감옥에 갇혀 계속 박해를 받고 있다. 지중성은 린이시 란산구 란야오상촌 출신으로 전 란산구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판공실 주임이며 현재 은퇴했다. 그는 잠수함 부대에서 16년간 복무했으며,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백혈구 감소증, 위장병, 관절염, 저색소증, 극심한 면역력 저하 등 여러 질병을 앓게 돼 일 년 내내 입원하며 약을 달고 살았다. 1996년 4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후, 그의 모든 질병은 기적처럼 치유됐으며, 이후 약한 알 먹지 않고 몸이 건강해졌다. 1999년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후, 지중성은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장기간 괴롭힘, 불법적인 가택수색, 감금, 혹독한 고문을 당했으며,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 떠돌아다녀야 했다.

허난성 뤼양시 무단 산부인과 병원 의사이자 53세 파룬궁수련자인 한젠잉(韓建英)은 2026년 3월 져시구 법원에 의해 황당한 이유로 불법적으로 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이유’라는 것은 그녀가 2년 내에 행정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한젠잉은

즉각 항소했지만, 최근 뤼양시 중급법원은 2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2024년 8월 초: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지폐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져시구 공안분국의 경찰 4명이 그녀의 집에 침입해 가택수색을 했고, 그녀를 공안분국으로 납치해 심문했다. 2025년 9월 초: 그녀는 또다시 현지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구치소에 감금됐다. 같은 해 12월 초, 져시구 공안분국에 의해 져시구 검찰원으로 불법 송치됐다.

납치, 감금돼 2년 넘게 모함을 받은 산시성 바오지시 치산현 파룬궁수련자 류후이샤(劉會俠)가 치산현 법원에서 5년 2개월형이라는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 2026년 6월 24일, 그녀는 바오지구치소에서 산시성 여자감옥으로 이감됐다. 2024년 5월 22일 오전, 류후이샤는 치산현 형리화위안에 있는 집에서 경찰에게 납치돼 먼저 치산현 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감금됐다가 메이산현 구치소로 이감됐고, 이후 다시 푸평현 구치소에 감금됐다.

2026년 6월 24일,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파룬궁수련자 린진리(林金麗)는 장쑤성 양저우시 광링구 법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3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벌금 1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양저우 공안은 ‘휴대폰 블루투스 문자 2건 및 휴대폰 1대’를 구실로 이른바 ‘증거’를 날조해 그녀를 모함했으며, 결국 이 심각한 억울한 사건을 초래했다. 2025년 8월 10일, 그녀는 딸과 함께 양저우시에서 여행하던 중 경찰에게 납치돼 지금까지 양저우 구치소에 감금돼 있다.

장시성 난창시 가오신구 마추진의 72세 파룬궁수련자 숭추이환(熊翠環)은 2024년 12월 7일 고등학생들에게 진상 책갈피를 나눠주며 학생들이 ‘파룬따파하오, 찰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알게 되기를 바랐다는 이유로 2025년 1월 6일마추

진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와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녀는 당시 몸이 불편해 ‘취保候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을 받았다. 2025년 11월 5일, 국보대대 경찰은 송추이환을 모함하는 소위 ‘자료’를 난창시 시후구 검찰원으로 보내 추가적인 박해 절차를 추진했다. 2026년 6월 5일 오전 10시, 난창시 시후구 법원은 송추이환에 대해 부당한 재판을 열었고 송추이환에게 3년 2개월형을 선고하고 벌금 7천 위안을 갈취했다.

헤이룽장의 하얼빈시 파룬궁수련자 구푸바오(顧福寶)가 비밀리에 1년 10개월의 불법 판결을 받고 현재 하얼빈 후란 감옥에 감금됐다. 5월 18일, 가족이 면회를 갔으나 거부당했다. 후란 감옥 측은 ‘공사’를 이유로 면회 시간을 두 달 뒤인 7월 18일로 미뤘다. 구푸바오는 2025년 7월 15일, 그는 난강구 마뎬가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들에게 파룬따파 진상 자료를 나눠주다가 인근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가택수색을 당하고 난강구 구치소에 감금됐다. 이후 다오리구 공안분국 구치소로 이감돼 감금 모함을 받았다.

산둥성 린이시 쥐난현의 67세 은퇴 여교사 완쉬신(萬緒欣)은 2024년 10월 납치 및 가택수색을 당한 뒤 세뇌반에 감금돼 계속해서 경찰의 모함을 받았다. 2026년 5월 9일 또 린수현 검찰원에 불법적으로 소환됐고, 6월 15일과 23일 두 차례 린수현 법원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은 끝에 부당하게 1년형과 벌금 5천 위안을 선고받았다.

초기에 명후이왕에 접속한 경험을 회상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후이왕] 우선 명후이왕 설립 24주년을 맞아 명후이왕과 참여해주신 모든 수련생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명후이왕은 저와 22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해 막 사회에 첫발을 디딘 학생이 오늘날 반백에 가까운 사회 엘리트가 되기까지, 22년간 수련하면서 저는 명후이왕과 함께하면서 명후이왕의 도움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명후이왕에 처음 접속한 것은 2002년 4월이었는데, 당시 저는 베이징에서 일했습니다. 기억에 그날 상사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진상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에는 명후이왕 접속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사에게서 편지를 가져와 저녁에 퇴근 후 동료들이 다 가기를 기다렸다가 혼자 사무실에서 이 방법에 따라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그 당시 회사에서 사용하는 전화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했고, 프리게이트(自由門)와 울트라서프(無界)가 없었습니다. 인터넷 봉쇄를 뚫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익명의 해외 프록시 서버를 수동으로 검색한 다음, 이 프록시 서버를 IE 브라우저의 프록시 URL에 입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에 저는 여러 프록시 서버를 입력했고 반복해 시도했는데 두 시간 남짓 후 드디어 명후이왕이 열렸습니다. 명후이왕을 처음 보았을 때 제 마음은 더없이 설렘니다. 저는 명후이왕을 밤늦게까지 훑어보다가 막차 시간이 다가오자 아

쉬운 마음으로 밍후이왕을 달고 퇴근했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밤 동료들이 떠나기를 기다린 후 저는 밍후이왕에 접속했고 주말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사무실에서 밍후이왕에 접속했습니다. 매일 밍후이왕에 게재된 전 세계 대법제자들의 소식을 제때 접하는 것이 저의 필수과목이 됐습니다. 밍후이왕은 중국 수련생이 절대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국내의 박해 상황이 아무리 사악하더라도,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전 세계의 많은 외국 대법제자가 우리를 위해 뛰어다니고 호소하고 우리의 박해를 덜어주고 있었고, 또 많은 나라 정부에서 우리를 위해 중국공산당(중공)에 파룬궁 박해를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많은 대법제자가 사악한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형식으로 파룬따파와 대법 사부님을 위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파룬따파의 진상을 중국 곳곳에 전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밍후이왕에서 박해당한 수련생 부부 가족이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근처에 도와줄 대법제자가 있냐고 묻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밍후이왕에 제가 돌봐줄 수 있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바로 밍후이 수련생으로부터 답장받았습니다. 수련생은 편지에서 저에게 상황을 물으며 안전에 유의하라고 했는데 말속에는 관심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 수련했습니다. 수련한 지 겨우 서너 달밖에 안됐고 대법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 사악한 중공이 대법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기간에 결혼하고, 논문을 쓰고, 졸업하고, 근무를 하고, 베이징에 청원을 가고, 불법 수감되고, 공직에서 쫓겨나고, 이혼하고, 곳곳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등

일을 겪었고, 늘 생활이 곤란해 떠돌아다니기에 당시 제 곁에는 수련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후이왕 수련생의 답장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은 형언할 수 없이 기쁘고 설렘이며 수련생의 몇 마디 말을 더없이 소중히 여겼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인지, 명후이왕 수련생은 시련을 겪는 수련생 가족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저는 명후이 수련생과 20년 이상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동안 제 상황이 어떻든 저는 명후이왕과 헤어진 적이 없었고, 마음에서도 명후이 수련생과 헤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베이징은 사악한 공포가 극에 달해 밤낮 거리 곳곳에 경찰차가 경적을 울리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밤 명후이왕에 접속했고 마지막 버스가 떠날 때에서야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베이징의 4~5월 날씨는 춥지 않고 따뜻한 바람이 부는 편이었지만 매일 밤 사무실을 떠나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온몸이 무의식적으로 떨렸는데, 마치 추운 겨울에 옷을 너무 적게 입은 듯 견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저는 명후이왕에 게재된 수련생의 교류 글을 꾸준히 보면서 수련생이 사악의 박해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바른 일념으로 바르게 행동하고, 사부님과 법을 믿으며 시련을 넘겼는지 보았고, 대법이 창조한 무수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큰 힘과 촉진을 주었고 점차 신과 불법신통의 존재를 믿게 되면서 무신론 관념을 깨뜨렸습니다.

명후이왕 수련생들의 촉진으로 저도 2003년 ‘전법륜(轉法輪)’과 기타 대법서적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이미 20여 년간 외우고 있습니다.

밍후이왕은 새로운 인터넷 접속 방법과 진상 CD, 진상 자료를 만드는 방법도 게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인터넷 접속 방법을 배웠는데 나중에 프리게이트와 울트라서프가 있게 됐습니다. 22년간 사악한 중공이 아무리 봉쇄해도 제 밍후이왕 접속을 차단시킬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컴퓨터를 샀고 CD와 진상자료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녁에 저도 다른 수련생과 마찬가지로 베이징 거리마다 진상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다른 수련생과 마찬가지로 저도 제 수련 경험과 중국의 일부 정보를 밍후이왕에 보내 전 세계 수련생과 교류하고 더 많은 사람이 중국의 진실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부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때를 회상하면 오늘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함께 정진할 수 있으며, 함께 사부님이 정해주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수련생의 연금 지급이 중단된 것을 보고 든 생각

글/ 중국 대법제자 여련(如蓮)

[명혜망] 최근 명혜망에서 많은 수련생의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것마저 토해내야 한다는 소식을 보고 마음이 무척 씁쓸했다. 정법(正法) 노정이 마지막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억울한 판결을 받고도 손실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고, 사악이 자신을 법원에 기소하고 집까지 찾아와 돈을 요구하며 집을 압류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

내가 여기서 연금 지급이 중단된 수련생들을 탓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들 “사부님을 도와 정법한다, 사부님을 도와 정법한다”라고 말하지만 지금까지도 이런 국면이 계속된다면 어찌 사부님을 도와 정법[助師正法]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대법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부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수많은 대법제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매일 세 가지 일을 잘한다고 해서 기준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대법제자를 가늠하는 것은 전방위적인 면을 보는 것이다.

1999년 ‘7·20’이라는 사악의 박해가 가장 창궐했던 시기에도 우리는 압박을 견뎌내며 걸어왔다. 세뇌, 강제노동, 징역형, 정신병원 감금, 고문과 학대, 금전 갈취, 공직 박탈, 연금 지급 중단 등 박해를 겪었다. 수련생들은 이를 마치 늘 있는 일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듯하고 모두 그렇게 걸어왔으니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면서 일종의 마비된 상태에 처해 있다.

노동수용소나 감옥에서 나와 엄중한 박해를 받은 수련생들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다. 박해를 심하게 받은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안일한 마음이 생겨 그저 며칠 편안한 날을 보내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일도 겨우 하고 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동한 층차의 수련자에 대해, 법은 그에 대해서도 부동한 층차의 요구가 존재한다.”(정진요지-무루)

수련은 마치 물을 거슬러 배를 모는 것과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하게 된다.

어떤 수련생은 사악의 압박 속에서 수련 포기 각서를 썼다가 인터넷에 무효 성명을 냈고, 이후 어떤 이는 시간을 아껴 세 가지 일을 잘하고 있지만 어떤 이는 속인의 삶을 살고 있다. 유랑 생활을 하는 수련생도 능동적으로 법률을 이용해 박해에 반대하지 않고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세 가지 일을 하는 데 지장만 없으면 된다고 여긴다. 이로 인해 주변 중생이 대법제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진상을 받아들이지 않게 만든다. 금전을 갈취당하거나 연금 지급이 중단돼도 요구하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인내하고만 있으니 모두 일종의 태만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다.

사부님께서 명시하셨다. “당신들은 늘 나에게 위로 이끌게만 하고 당신들 스스로 가지 않아서는 안 된다. 법을 명시적으로 말해야만 당신들은 비로소 움직이며,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거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나는 이런 행위를 수련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정진요지-뿌리를 캐다)

우리 모두는 이 박해가 강요된 것이며 승인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마땅히 당당히 나서서 박해에 반대하고 박해를 저지하며 법률을 이용해 박해에 반대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사악에게 코가 꺾어 끌려다닐 수는 없다.

수련생 여러분! 법정인간(法正人間) 시기는 가만히 기다려서 오는 것이 아니며 어느 대통령이나 어느 유명 인사에게 집착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대법제자들이 착실하게 해나가야 하는 것이며 진정으로 행하는 과정에서 중생에게 진상을 알리고 다른 공간의 사악한 요소를 해체해 진정으로 걸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에게 희망을 걸겠는지? 중생들은 모두 당신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각지 설법2-2002년 미국필라델피아법회 설법)

나는 2006년 모 지역 11개 시·현 대법제자들이 노동수용소에 불법 감금된 수련생을 구출하기 위해 가족과 동행해 사람을 찾아왔던 일이 기억난다. 당시 어린 수련생이 노동수용소에서 “엄마, 집에 가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를 돌려줘요!”라며 울부짖었다. 어떤 수련생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현지 수련생들은 큰 공장 건물 안에서 정념(正念)을 발했는데 자리가 가득 찼다. 노동수용소는 난장판이 됐고 사악은 몹시 공포에 떨었다. 다음 날 노동수용소 문 앞 도로에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사악은 두려워하며 확인하려 했다.

2007년 모 지역 여성 수련생 두 명이 납치돼 다른 지역 수련생이 공중전화 IC카드로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에 전화를 걸었다. 노년 수련생이 아무리 해도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어떤 목소리가 그녀에게 앞에 0을 붙이라고 알려줬고 이내 전화가 연결됐다. 노년 수련생은 감격해 사부님께 감사드렸다.

또 다른 지역 수련생도 국보 대장 본인과 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진상을 알렸고 3일 후 여성 수련생 두 명은 풀려났다. 편지를 부치는 88세 수련생은 “나는 매일 명혜망에 접속해서 어느 지역 수련생이 박해받았는지 확인하고 그곳으로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이 노년 수련생은 자료를 짚어지고 9층까지 올라가면서도 전혀 숨을 헐떡이지 않았다.

이처럼 착실히 수련한 사례는 아주 많다. 이를 말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무리를 지어 휩쓸리자는 뜻이 아니라, 사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련생 여러분! 사부님께서서는 당신의 신체로 거대한 감당을 하시며 시간을 연장해 주고 계신다. 우리 대법제자들이 전체적으로 제고하고 전체적으로 깨닫고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진정으로 해내야 한다. 강제노동을 당했거나 징역형을 받은 대법제자는 다방면의 손실 비용을 사악에게 요구해야 한다. 박해를 심하게 받은 대법제자는 매우 사악한 악도를 고발하고 고소할 수 있다. 금전을 갈취당하거나 연금이 중단된 이는 우리 자신의 돈을 찾아와야 하고, 유랑 생활을 하는 이는 우리에게 대한 기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해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한 현재 불법 감금돼 있는 수련생들을 구출해 내야 한다.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관련 부서 직원들을 직접 만나 진상을 알릴 수도 있고 진상 편지를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으며, 진상 자료를 대량 배포하거나 사람을 만나면 바로 전해 줄 수도 있다.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시(현), 지역, 성을 거쳐 국무원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한다. 그리하여 더 많은 부서와 더 많은 중생이 진상을 알게 해야 한다. 과정에서 사람 마음을 버리고 중생을 구하며 사악을 해체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 대법제자 각자가 자신의 하늘을 떠받치고 우리의 수련 환경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법정인간을 맞이하자.

내가 깨닫기에는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전체 대법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다른 항목을 지체해서도 안 된다.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되는 수련생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조건이 약간 안 되는 수련생은 글을 아는 수련생의 도움을 받아 공의포럼(公義論壇)에 올릴 수 있다. 포럼 수련생들이 매 걸음을 어떻게 가야 할지 아주 세심하게 지도해 줄 것이다.

수련생 여러분!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자. 하루빨리 기준에 도달해 진정으로 사부님의 정법 노정에 발맞춰 나가자. 사부님을 기쁘게 해 드리자!

층차에 한계가 있어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의 자비로운 지적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스(合十)!

일부 동영상에 대한 당부

글/ 해외 수련생

[명혜망] 최근 직업과 관련된 전문 분야 동영상을 공부하려다가 중국 본토의 어떤 주류 장편 동영상 사이트에서 몇 개의 동영상을 보게 됐다. 그 동영상들과 이 업로더 홈페이지의 동영상들이 모두 인류가 재난에 직면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예언을 이야기하거나 파자(破字), 점괘 등의 방식으로 재난이 발생하는 시간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이 동영상들에서 ‘신(新)지구, 구(舊)지구’, ‘창세주’, ‘구세력’ 그리고 구원받는 인류가 ‘신지구’로 들어간다거나 사회가 원시 사회로 돌아간다는 등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모두 대법제자만 알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자나 점괘로 재난을 예측하는 것은 대법제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어서 나는 매우 의아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업로더가 충분히 이성적이지 않은 수련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 동영상 사이트에서는 직접 진상을 알릴 수 없어서 대재난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시청자에게 일깨워주는 것 같았다. 다시 생각해 봤는데 이런 대재난에 관한 동영상만 대량으로 만드는 것이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 안에서 또 오직 대법제자만 아는 것을 이렇게 함부로 동영상으로 만들어 속인이 보도록 전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기표현 욕구가 너무 강해서 보통 사람들의 이해 능력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속인에게 진상을 알릴 때 너무 높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더욱이 자신의 집착심이나 과시심, 또는 다른 목적으로 속인이 현 단계에서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속인이 인류에게 대재난이 있을 것을 알고 진상을 이해하며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함부로 쉽게 더 높고 더 큰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은 것이 아닐까? 천기를 누설하는 것이 아닐까?

또한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이 ‘낙시’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용해 중국 수련생들을 끌어들이 소통하고 댓글을 달게 함으로써 수련생의 계정이 사악의 눈에 띄게 되면 더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기에 나도 경각심을 가졌다. 중국 수련생들은 반드시 신중하게 가려보고 이런 동영상 아래에 가볍게 소통하거나 댓글을 달지 않아 자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른 공간에서 본 게임 중독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면

글/ 해외 대법제자

[명혜망] 우리집에는 아이가 둘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따라 수련하며 어릴 때부터 대법을 접하고 법공부, 연공 및 각종 대법 활동에 참여해왔다. 수련하는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들의 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썼고, 휴대폰과 게임의 폐해에 주의하라고 늘 당부했지만, 외부 환경의 유혹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웠다. 아래 이야기는 최근 반년 사이에 있었던 일로, 당시 큰 아이 14살, 동생은 8살이었다.

큰 아이는 중학교에 들어간 뒤부터 휴대폰 게임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 후로 중독 증세도 점점 심해졌다. 우리는 큰 아이의 휴대폰 사용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상황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반복했고, 아이가 끝내 완전히 끊지 못하면서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졌다.

감정이 격해질 때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모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가구를 부수기도 했으며, 물건들이 어질러진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일도 잦았다. 더 심할 때는 투신하겠다는 말까지 내뱉은 적도 있었다.

게임에 빠지기 전까지 큰 아이는 늘 착하고 효성스러우며 자상한 아이였고, 마음씨도 매우 따뜻해서 평소 집안일을 도울 때도 마다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게임에 중독된 이후로는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사납고 완고하게 변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우리는 마음속으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의 마성(魔性)이 어찌다 이렇게까지 강해진 것일까?’

학교에서도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었고, 꾸준히 법공부와 연공을 하는 것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이의 상태는 상당히 나빠졌다. 오랫동안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며 우리는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끝내 나아지지 않았고, 마음속으로도 몹시 괴로웠으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신(神)의 인도가 길을 열다

작은 아이는 어릴 때부터 천목(天目)이 열려 있었는데, 나중에 다른 공간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되면서 스스로 원하지 않아 사부님께 부탁드려 닫아달라고 했다. 형의 일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작은 아이의 천목이 다시 열리게 됐다.

하루는 동생이 어떤 신께서 자신에게 형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런데 그 신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다고 한다. “네 능력은 아직 부족해, 그건 너무 커.”

그 후 동생은 형을 조종하는 게임 마귀를 보게 됐는데, 다른 공간에서 대략 4층 건물 높이였고, 생김새는 인간 세상의 고릴라와 비슷했으며 붉은 눈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사람을 조종하며 해당 인물의 집 근처를 배회했고, 때로는 우리집 창가에 와서 우리를 지켜보기도 했다. 하지만 감히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대법제자이고 집안에 사부님의 법신이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작은 아이가 보니,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곁에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게임 마귀가 하나씩 있었다. 이 밖에도 사람마다 몸에 작은 게임 마귀들이 여러 마리 붙어 있었는데, 이는 큰 게임 마귀에서 파생돼 나온 것이었다. 큰 아이의 몸에는 대략 30마리의 작은 게임 마귀가 붙어 있었다.

게임 마귀의 에너지

얼마 후 신께서 다시 작은 아이에게 와서 말씀하셨다. “형을 도와 정념을 보내라.” 그리하여 우리(부모)와 작은 아이 셋이 그 큰 게임 마귀를 향해 정념을 보내기 시작했다. 첫날 정념을 보낸 뒤, 작은 아이는 그 큰 게임 마귀의 에너지가 4칸 줄었다고 했다. 알고 보니 마귀마다 생명력에 수치화할 수 있는 에너지 칸이 있는데, 이 큰 게임 마귀의 에너지는 형이 이미 19칸까지 키워놓은 상태였다. 게임을 할 때마다 이 마귀들에게 계속 에너지를 보태주는 셈이었다. 작은 아이는 또 에너지가 50칸까지 쌓이면 당사자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현실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며, 사람을 죽이거나 칼로 해칠 수도 있다고 했다.

큰 아이가 평소 기숙사 생활을 하며 일주일 내내 집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기간 우리는 거의 매일 함께 큰 아이를 위해 정념을 보냈다. 5일째가 되던 날, 동생은 형을 주로 조종하던 그 큰 게임 마귀가 마침내 제거됐다고 했다. 그 뒤로 큰 아이의 몸에 붙어 있던 작은 게임 마귀들을 제거하는 일은 훨씬 수월해졌다.

정념을 보낸 뒤의 변화

큰 아이의 몸에 있던 크고 작은 게임 마귀들을 처음으로 모두 깨끗이 제거(소멸)했을 때, 주말에 아이가 집에 돌아오자 우리는 크게 놀랐다. 완전히 판사람처럼 달라져 예전의 착하고 순수한 미소를 되찾았고, 우리와 대화하려는 마음도 생겼으며, 더 이상 불같이 화를 내지 않았고 부모에게 말할 때도 더는 사납게 굴지 않았다. 더욱 뜻밖이었던 것은, 우리와 함께 법공부를 하겠다고 말한 것이었다. 그 느낌은 마치 원래 그 착한 아이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다.

게임 마귀가 잠시 소멸됐다고는 해도, 큰 아이 자신이 게임에 대해 가진 집착은 아직 진정으로 내려놓지 못한 상태였다. 아이가 계속 게임을 하는 한 곧 새로운 게임 마귀가 다시 자라날 것이고, 그것도 이전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자라날 것이었다. 처음에는 우리도 계속해서 정념을 보내 제거해줬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온전히 외부의 힘에만 의지해 제거하고 자신의 마음속 집착을 진정으로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새로운 마귀들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후 우리는 방식을 조정해, 매번 완전히 제거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아주 약한 상태로 눌러두는 쪽을 택했다. 나머지 부분은 오직 큰 아이 스스로가 게임에 대한 집착을 진정으로 내려놓아야만 해결될 수 있었다. 다행히 우리가 정념을 보낸 뒤로 큰 아이는 지금 한결 이성적으로 변했고, 법공부도 하려는 마음이 생겼다. 앞으로 천천히 법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아이가 점차 이 게임에 대한 집착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그것을 진정으로 없앨 수 있기를 바란다.

선원 음악의 힘

또 한번은 우리가 큰 아이를 위해 정념을 보내던 중, 그 큰 게임 마귀가 더 높은 차원에서 전 세계 모든 게임을 관장하는 최대의 마귀(우두머리)를 데려와 지원을 청했다. 동생은 그 에너지가 매우 강해서 우리 셋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 순간 작은 아이가 즉시 의념으로 선원 음악을 내보내자, 그 큰 마귀(우두머리)는 놀라서 곧바로 달아났다. 그 후로 우리가 정념을 보낼 때마다 그것은 다시는 감히 나타나지 못했다.

마귀의 보복 시도

작은 아이는 이 마귀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간에서도 이런저런 곤란을 겪곤 했다. 그 게임 마귀는 분해서 작은 아이의 학교까지 찾아가 곤란을 주기도 했다.

한번은 게임 마귀가 발 하나를 작은 아이가 수업을 듣던 교실 안으로 들이밀어 교실이 흔들렸고, 당시 선생님이 쓰고 있던 전자 기기가 고장 나기도 했다.

또 한번은 교실 안에 아주 많은 마귀들이 나타나 작은 아이를 향해 몰려들었다(이는 형의 인스타그램 마귀를 제거해준 데 따른 여파였다). 그 순간 천병천장(天兵天將)이 동생을 겹겹이 둘러싸 보호하며 그 마귀들을 모두 소멸시켰다.

각종 게임과 SNS 마귀

작은 아이는 나중에 또, 사람을 빠져들게 하고 중독시키는 모든 것들이 다른 공간에서는 다 생명체로 존재하며, 그중 주요 마귀들의 몸집은 하나같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게 됐다. 예컨대 큰 아이가 빠졌던 그 게임의 진짜 본체 마귀는 대만의 3분의 1 크기만큼이나 컸다. 게임뿐 아니라 SNS에도 각기 대응하는 마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마귀는 몸집이 태평양만큼이나 컸고, 페이스북 마귀는 남극 대륙 아래에 살고 있는데 몸집이 남극만큼이나 컸다.

발정념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수련생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함이다. 게임 중독은 수련생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마귀의 에너지가 커지고 강해질수록 사람을 조종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다. 우리는 원래 착하고 순수했던 한 어린 대법제자가 점차 마성이 크게 폭발하는 매우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우리가 정념을 보내 이 마귀들을 제거한 뒤에야, 아이의 원래 착하고 순수했던 본성이 다시 서서히 돌아왔다.

그러므로 게임 마귀뿐 아니라 각종 SNS나 전자제품에서 생겨난 마귀들도 모두 사람의 정화(精華)와 에너지를 빨아들이며 사람을 점차 마귀로 변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집에 어린 수련생이 있는 대법제자라면, 반드시 어린 수련생이 발정념을 중시하도록 하고, 반드시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휴대폰 사용을 통제하는 일이 매우 까다로운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주하는 것은 아이 자신뿐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수많은 마귀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지린성 여자 감옥의 박해 수법을 읽은 소감

글/ 지린성 대법제자

[명혜망] 최근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명혜망은 지린성 여자 감옥에서 파룬궁수련생을 잔혹하게 박해한 글을 여러 편 발표했는데, 가장 최근 글은 ‘지린성 여자감옥의 ‘전향’ 박해 수단과 전형적인 사례’다.

나는 이런 박해 사실을 보고 이렇게 많은 수련생이 중국공산당(중공)의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가슴이 아팠다. 나는 몇몇 수련생에게 이 글들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대답은 거의

다 “한 번 훑어봤다”라거나 “제목만 보고 내용은 안 봤다”였다. 내가 물어본 수련생 중에는 협조인 수련생도 있었고 대면해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하는 수련생도 있었는데, 다시 말해 모두 비교적 정진하는 수련생이었다. 물론 이 수련생들이 한때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거나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런 대답을 듣고 내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나 자신을 반성해 보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계속 무감각했음을 발견했다.

박해받아 본 수련생은 모두 안다. 중공에 불법적으로 구금됐을 때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바깥소식을 알고 싶고 얼마나 수련생들의 정념 가지(加持)를 얻고 싶은지를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 지린성 각 지역 수련생들이 각 지역 내에서 협의를 거쳐,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지린 여자 감옥 8감구라는 이 사악한 검은 소굴을 어떻게 정념으로 해체할지 의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경험이 있다면 서로 참고하고, 우리 성(省) 전체 수련생이 동시에 정념을 발할 수 있다면 더욱 힘이 있을 것이다. 정법 시기가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진작에 그것을 해체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계속 흥포하게 날뛰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되며, 이 사악한 검은 소굴이 대법제자를 계속 박해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이위(代玉)를 우두머리로 해 ‘bao자(包夾, 수련생을 밀착감시하는 수감자)’ 노릇을 하는 몇 명의 악행을 그녀들의 고향, 친척, 이웃에게 폭로하고 동시에 진상을 알려 그녀들이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제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는 그녀들과 그녀들의 가족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사실 그녀들의 악행은 틀림없

이 감옥경찰이 지시했을 것이다. 듣자 하니 8감구 감옥경찰들은 모두 새로 온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녀들에게 진상을 알려 구하고 사악을 질식시킬 좋은 방법이 없을까?

다이위의 악행을 보라. ‘전향’되지 않은 모든 수련생은 결국 8감구 007호 감방으로 보내진다. 감방장 다이위(별명 ‘말 이빨’)는 몹시 음흉하고 악독한데, 그녀의 가장 악질적인 수법은 파룬궁 창시자의 사진을 수련생 바지 속에 쑤셔 넣고 더러운 욕설을 퍼부어 수련생을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다[파룬궁수련생들은 모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파룬궁 창시자를 더없이 존경하고,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더없이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007호 감방에 보내진 수련생 중 99%가 강제로 ‘전향’됐다.(‘지린성 여자감옥의 ‘전향’ 박해 수단과 전형적인 사례’에서 발췌)

사악한 요소가 대법제자를 잔혹하게 박해하는 것은 바로 대법제자를 파멸시키려는 것이니, 방관하는 것은 곧 묵인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 말이 편파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서 무감각한 상태가 돼서는 안 되며, 수련생이 감옥에 갇히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점차 그들을 잊어버림으로써 사악의 박해를 방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이런 검은 소굴을 해체하러 가야지 이런 사악의 존재를 외면하고 그것들이 거리낌 없이 대법제자를 박해하도록 내버려 뒀서는 안 된다. 대법제자는 신의 사자로서 세간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창세주께서 부여하신 권리인데, 어쩌 사악한 요소가 마음대로 박해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인가?

구세력이 안배한, 감옥을 이용해 수련자를 시험하는 이런 박해 시스템은 진작 해체됐어야 했다. 감옥은 범죄자를 개조하는 곳이 지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곳이 아니며, 대법 수련자를 박해하는

곳은 더더욱 아니다. 동시에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계통에서 박해에 가담한 모든 인원이 저지른 죄악은 깊을 길이 없을 것이다. 사악한 요소가 공검법 인원에게 박해에 가담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그들을 순장시키려는 것인데 반해 우리는 그들을 구하려는 것이므로,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감옥이라는 이 사악한 안배를 해체하는 것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일이다.

지린시, 쓰핑시, 공주링시에는 모두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감옥이라는 검은 소굴이 있다.

창춘은 대법이 전해진 성지(聖地)이므로 우리는 사악이 이 땅에서 계속 흉포하게 굴도록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수련생들이여, 협력을 잘하자! 이렇게 많은 대법제자가 협력만 잘한다면 반드시 사악을 해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인식이 제한적이라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바로잡아주시길 바란다.

법 속에서 정념이 생겨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해체하다

글/ 랴오닝성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1995년 3월 다행히 대법을 얻었고, 대법 수련 속에서 꼬박 30년을 걸어왔습니다. 끊임없이 법공부를 하고 법을 외우는 과정에서 정념은 갈수록 강해졌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갈수록 약해졌습니다. 정념으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점차 해체해 나가는 이 과정이 바로 사람에서 신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1. ‘박해받는 자’라는 사고방식(두려움) 해체

저는 일찍이 대법에 대한 신앙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불법 판결을 받았고, 감옥에 불법 구금된 기간 심신에 잔혹한 박해를 겪었습니다. 동시에 원래 다니던 번듯한 직장을 잃었고, 이후 남편과도 강제로 이혼당하면서 사업에 성공하고 가정이 화목했던 ‘성공한 사람’에서 단숨에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막 집에 돌아왔을 무렵, 파출소와 주민센터 직원도 수시로 찾아와 괴롭혔습니다. 박해는 제 마음에 거대한 그늘을 남겼고, 구세력(舊勢力)은 제게 매우 무거운 두려움을 강요했습니다. 2년여의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천천히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 대량으로 법공부를 하고 법을 외우며, 법 속에서 끊임없이 정념을 강화해 박해를 두려워하는 사고방식을 조금씩 타파했습니다.

1) 일반인 법률의 측면에서 박해를 두려워하는 사고방식 타파

대법제자로서 중생을 구하기 위해 하는 일이 모두 가장 바르고 가장 좋은 일이며, 박해받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자신을 ‘박해받는 자’의 위치에 놓고, 사악에게 ‘약점’을 잡히면 박해받을 것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사건 담당 직원이 제게 집에서 연줄을 찾아 놓았으니 수련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만 쓰면 집에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도 제 머릿속엔 ‘설령 판결을 받더라도 보증서는 쓰지 않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위법한 일을 한 적이 없으니 보증서를 쓰지 않더라도 애초에 판결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현행 법률 테두리 안에서도 파룬궁을 수련하고 중생을 구하는 일이 모두 합법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막 집에 돌아왔을 때 파출소와 주민센터 직원이 수시로 찾아와 괴롭혔지만, 그저 사람의 방법으로만 대처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괴롭힘이 불법이므로 마땅히 당당하게 물리쳐야 한다는 점을 몰랐습니다. 이후 관련 법률과 문건 등을 읽고 현재 중국 법률로도 파룬궁 수련이 합법이며, 파룬궁 서적과 인쇄물이 모두 합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저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파룬궁 수련은 합법이고 저는 법을 준수하는 공민이며, 당신들의 행위가 오히려 불법으로서 저를 괴롭히고 저의 합법적인 인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할 말을 잃었고 점차 더는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2) 정법수련의 각도에서 박해를 두려워하는 사고방식 타파

진상을 알리다 박해받았던 짚은 그늘 때문에, 한동안 진상을 알리고 자료를 배포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예전에는 개인 수련의 기점에서 서 있었기에 늘 자신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여겨 항상 그 마음에 휩쓸렸고 마음이 불안정했습니다. ‘구세력이 내게 두려운 마음을 강요한 것은 바로 빈틈을 노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은 내가 아니니 나는 그저 정법을 책임지며 발정념으로 제거하면 된다!’ 저는 처음에 두려운 마음에 휘둘리던 상태에서 벗어나 그것이 제가 아님을 분간해 냈고, 나아가 그것을 붙잡아 제거하기에 이르면서 정념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지금도 두려운 마음이 수시로 올라오지만 갈수록 약해지고 있으며, 제거하는 속도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법리상으로도 박해에 대해 더욱 분명한 인식이 생겼습니다. 만약 개인 수련의 기점에서 본다면, 자신의 집착이 박해를 초래했기에 집착을 닦아버려야만 박해받지 않을 수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이는 즉 박해를 ‘사람이 사람을 박해하는 것’으로 보는 셈입니다. 그러면 공안, 검찰, 법원 직원과 자신은 ‘박해하는 자’와 ‘박해받는 자’의 관계가 되며, 자신이 피동적으로 박해를 감당하는 동시에 박해에 가담한 사람들 역시 대법에 죄를 짓게 만들어 구원받을 기회를 잃게 합니다. 반면 정법수련의 기점에서 본다면, 본성의 일면은 신우주(新宇宙)의 신으로서 애초에 집착이 없고 가장 순수합니다. 모든 집착은 구세력이 강요한 것입니다. 사람 표면에 설령 집착이 반영돼 나온다 해도 구세력은 저를 시험할 자격이 없고, 중생을 조종해 저를 박해할 자격도 없습니다. 안으로 찾아 집착을 제거하는 동시에 발정념을 해 중생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사악한 요소를 제거한다면, 자신과 공안, 검찰, 법원 직원은 ‘구원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의 관계가 됩니다. 능동적으로 박해를 해체하는 동시에 그들도 구하는 것입니다.

3) 신사신법(信師信法)으로 박해를 두려워하는 사고방식 타파

법을 통해 우리는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가 구세력이 안배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부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인정하지 않으며,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박해를 안배하지 않으셨으므로 우리는 구세력이 안배한 박해를 전면 부정해야 합니다. 박해는 애초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박해를 피할까 피동적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박해를 부정하고 해체해야 합니다. 정법시기 대법제자의 머릿속에는 애초에 ‘박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해선 안 되며, 우리는 오직 자신을 잘 수련하는 동시에 중생을 구하고 정법하는 것만 책임지면 됩니다!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서서는 전체 무량한 천체 대공을 창조 하셨습니다. 사부님의 제자인 우리는 오직 사부님의 관할만 받을

뿐, 그 누구도 우리를 관할할 자격이 없습니다! 구세력은 애초에 우리를 박해할 자격이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는 신우주의 신이며, 구세력은 이미 구우주(舊宇宙)에서 정법을 파괴하는 마(魔)로 정해졌기에 우리 새끼손가락 하나로 비벼 없애기에도 부족합니다. 한 수련생의 교류 글에 대략 이런 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불법신통(佛法神通)을 하사하셨는데, 우리는 금밥그릇을 들고 구걸하고 여의봉을 들고 매를 맞고 있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나 관념과 집착에 얽매어 사람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며, 자신이 사람에서 걸어 나와 신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박해받을까 두려워하는 사고방식은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하는 강도와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세 가지 일 중에서 제가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면으로 진상을 알리고 자료를 배포하는 일 등을 하기는 했지만 매일 하지는 못했고 전력을 다해 하지도 않았으며, 효과도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이는 향후 수련에서 가장 큰 힘을 들여 정성껏 잘해야 할 부분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점차 제거됨에 따라,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하는 일도 틀림없이 갈수록 더 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2.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질투심) 해체

타인과 지낼 때 제게는 이미 습관화된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타인의 의도를 악의적으로 추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시 공산당 당문화(黨文化)의 한 가지 표현입니다. 저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식할 수 있었지만, 줄곧 그 뿌리가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부님께서 제게 일깨움을 주셨는데, 바로 악의 뿌리가 질투심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질투심을 키우는 토양입니다. 남과 비교하

는 과정에서 ‘모두가 똑같다’고 느껴야만 비로소 마음이 평형을 이룹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남보다 높다거나 낮다, 혹은 얻은 것이 많거나 적다고 여기게 되면 불균형해져 질투심이 생겨납니다. 자신이 남을 질투하거나 남이 자신을 질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질투심이라는 이 뿌리가 있으면 오만함, 남을 깔보는 마음, 원망심, 분노, 쟁투심, 불균형, 과시심, 환희심 등 수많은 사람 마음이 생겨납니다.

1)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 여겨 오만하고 남을 깔보다

원래는 편협하게 ‘남이 나를 뛰어넘으면 질투하게 된다’고만 여겼지, 오만하거나 남을 깔보는 것 역시 질투심의 표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질투심은 심리적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높고 낮음의 구별을 두면 곧 마음이 불균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해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 등이 남을 뛰어넘는다고 여겨 오만해지면,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깔보고 무시하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자랄 때까지 제가 처한 환경에서 줄곧 비교적 우수하게 나타났기에 ‘당연한 듯’ 오만함에 익숙해져 스스로 깨닫지 못했고, 저의 경솔하고 거만한 태도가 타인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은 더더욱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의 능력과 재능은 모두 사부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지, 애초에 오만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2) 남이 자신을 뛰어넘으려 할 때 다투려 하고 승복하지 않다

과거에 제 성격은 비교적 강한 편이라 무엇을 하든 1등을 다투려 했고 남이 저를 뛰어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뛰어넘으면 질투심이 생겨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능력이 제게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직위가 저를 넘어서면 더욱 억울하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사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기예에는 끝이 없듯, 스스로 아무리 우수하다고 여겨도 항상 저보다 높은 곳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높은 지위에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수련 과정에서 저는 점차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남을 위해 박수 쳐 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3) 자신이 얻은 것이 많아 과시하고 기뻐하다

예전에는 남에게 지기 싫어했기에 당연히 명리(명예와 이익)를 좇았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그 명리 자체가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애써 쟁취하려 했는데, 오직 획득한 명리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남보다 많은 명리를 쟁취했을 때면 속으로 기뻐하며 과시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 자신이 노력해서 쟁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운명에 정해진 것이고, 만약 그게 아니라 진짜로 본래 남에게 속한 것을 빼앗아 왔다면 타인에게 빚을 진 것이므로 장래에 갚아야 합니다. 무엇을 과시할 게 있겠습니까? 어디 기뻐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얕고 무지하며 독단적인 ‘자아’가 표현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4) 얻은 것이 적어 분노하고 원망하다

일찍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얻지 못해 억울해하고 크게 낙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타인을 위해 힘들게 헌신했음에도 동등한 보답은커녕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을 당해 깊은 상처를 받고 마음에 원망이 생기기도 했으며, 때로는 제 관념만으로 남에게 함부로 꼬리표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자아’의 각도에서만 문제를 보았기에 타인이 제게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상대방의 고충을 헤아릴 수 있고 선의로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게 됩니다. 사람 속에서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누구나 실수를 범하며 저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련인으로서 사람의 이치에 국한해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되며, 생생세세 빚진 업채(業債)도 갚아야 하므로 대법으로 가늠해보니 그 모든 응어리가 눈 녹듯 풀렸습니다.

법공부를 통해 질투심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우주 대궁 속의 모든 생명은 대법이 만든 것으로, 모든 생명은 독립적인 개체이자 무량한 대궁을 구성하는 하나의 입자입니다. 모든 생명이 공동으로 전체 대궁을 구성해 전 우주를 번영시켰으니 어느 한 입자라도 빠지면 완전한 대궁이 아닙니다. 대궁 전체의 각도에서 보면 생명은 모두 평등합니다. 동시에 천체 우주에도 무량한 층차가 있어 각각의 개체 생명은 각기 다른 층차 속에 처해 각기 다른 특징을 구비하고 있으니, 개체 생명의 각도에서 보면 생명은 등급이 나뉩니다. 한 생명이 어떤 층차에 처하고 무엇을 가지게 될지는 애초에 자신이 선택할 권리가 없으며 그것은 사부님의 선택이자 우주의 선택입니다.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서 모든 생명이 각자 층차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 층차의 법이 조성한 것이고 소속 층차의 법의 기준과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기에 가지게 된 일체의 아름다움 역시 그 층차의 법이 체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생명은 자신이 처한 층차와 걸맞은 것이며 오직 자신의 층차에 머물러 있어야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질투심은 구우주 생명의 이기적인 속성이 집중적으로 체현된 것으로, 이 점은 구세력의 몸에서 남김없이 표현됐습니다. 신이라

도 자신이 처한 층차와 그 이하의 일체는 모두 꿰뚫어 보지만 자신보다 높은 층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구세력은 오만 방자하게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분수를 모르고 정법을 교란하다 자신을 망쳤고 무수한 중생도 훼손시켰습니다. 제 몸에 표현돼 나온 질투심은 구세력이 강요한 것으로, 각기 다른 층차의 구우주 생명이 지닌 질투심이 제 공간장(空間場) 속에 반영된 것입니다. 자신을 잘 수련해 질투심을 제거하는 이 과정은 동시에 제 공간장 속의 생명들을 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3. 일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초조함) 해체

제게는 완고한 관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일을 할 때 결과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완벽을 추구하며 결과의 완벽함을 고집하는 관념도 있었습니다. 매번 어떤 일에 부딪힐 때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늘 나쁜 결과가 나타날까 걱정했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설령 아주 작은 일이라도 지나치게 몰두하며 항상 긴장하고 초조해했습니다.

깊이 분석해보니 결과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관념이 이미 제 안에서 일종의 일 처리 방식으로 굳어졌음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일을 하기 전에 목표와 계획을 짜는 것은 바로 완벽한 결과를 미리 설정해 둔 것으로서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이후 이 결과를 최대한 빨리 얻기 위해 분투하는데,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 이는 ‘조급한 마음’이며, 만약 경쟁과 관련되면 ‘쟁투심’이 불쑥 솟아났습니다. 중간 과정에서는 결과가 이상적이지 않을까 봐 걱정하기에 심정이 줄곧 긴장되고 초조했는데 이는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만약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면 낙담하고 상실감을 느끼는데 이는 ‘득실을 따지는 마음’이었습니

다. 반대로 목표를 실현하면 기뻐하며 들뜨고 뽐냈는데 이는 ‘환희심’과 ‘과시심’이었습니다. 전체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속 깊이 평온하지 못했고, 단계마다 각기 다른 집착심이 수반됐던 것입니다. 수련인은 세간의 득실을 구하지 않고 순리에 따르는 법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중시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이 관념에 이끌려 얼마나 많고 강렬한 집착심을 빚어냈던 것입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중시하는 것은 밖으로 추구하는 것이자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일반인은 당연히 속세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동경하고 추구하며 이를 위해 분투해 노력하고 심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사에는 모두 인연이 있기에, 인생의 행복을 거머쥘 수 있는 것은 어찌면 전생에 쌓은 복덕으로 맞바꾼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 진짜로 애써 노력해서 억지로 쟁취한 것이라면 이후에 이를 위해 지은 업보를 고스란히 갚아야 합니다. 한 명의 일반인이 자신이 동경하는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얻고자 한다면 오직 선행을 베풀고 덕을 쌓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추구할수록, 아등바등 노력할수록 결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수련인으로서 마땅히 ‘원인’에 공을 들여야 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안으로 찾으며 자신의 마음 썸썸이에서 찾는 것이 비로소 근본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행하되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대법 속에서 수련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늘만큼 큰 기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딪힌 시련을 사람의 마음으로 가늠하면 고통을 느끼고 나쁜 일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법으로 가늠하면 고생을 겪고 재난을 당하는 것은 마침 제고할 좋은 기회이므로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이른바 ‘좋고’ ‘나쁨’은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관념이 바뀌자 일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더는 걱정하지 않게 됐고, 서서히 초조함이 즐겁고 흥가분한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대법 속에서 수련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30년의 수련 여정이 이번 생에서 보면 무척 길겠지만 전체 생명 과정에서는 단지 한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문득 뒤돌아보니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으며, 수확도 있고, 아쉬움도 남습니다…….

정법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각별히 소중히 여기며 신의 길에서 분발해 힘껏 뒤쫓는 것입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부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수련에 대한 나의 체득

글/ 광동성 대법제자

[명혜망] 대법에는 무한한 함의가 있습니다. 이 글은 단지 제가 현재의 층차에서 수련에 대해 깨달은 바를 수련생과 공유해 함께 제고하고 함께 정진하려는 것입니다!

1. 처음 법을 알게 되다

제가 2011년 5월에 처음 ‘전법륜(轉法輪)’을 접했을 때, 제1강을 다 읽고 나서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현대 언어로 설명한 불법(佛法)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2008년부터 수련하고 싶어서

온갖 영성 강좌에 참가해 보고 불교 경전도 읽어봤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만약 지금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부처님이 현대 언어로 경전을 설법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법륜’을 읽고 나니 너무 좋았습니다. 제 소원이 이루어졌고 간절히 바라던 일이 실현돼 정말 현대 언어로 된 경서를 얻었습니다.

제가 사부님의 각지 설법을 다시 한번 다 읽고 냈을 때, 제가 얻은 것은 일반적인 불법이 아니라 천법(天法)임을 알았습니다. 사부님께서 정법(正法)을 하고 계시며 만고에 없던 기회를 제가 만났으니 그야말로 너무 행운이었고 크나큰 영광을 느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열심히 수련하고 시간을 다그쳐 하루빨리 정과(正果)를 이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프린터를 한 대 사서 진상 전단을 다운로드해 출퇴근길, 육교, 공원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진상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더 많은 사람에게 대법의 진상을 알게 해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파룬궁이 바른 법이자 말접에 사람을 구하는 대법임을 알게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서서히 대면으로 진상 알리기도 배웠고, 지금까지 아마 5~6천 명에게 알린 것 같습니다.

2. 수련

저는 법을 늦게 얻었기에 수련을 더욱 다그치고 법공부에 더욱 공을 들여 시간이 날 때마다 법공부를 했습니다. 한 번 볼 때마다 조금씩 이해됐지만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책 전체를 다 이해하고 싶었으며, 어떻게 진정으로 수련하고 어떻게 진정으로 자

신을 잘 닦아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반복해서 읽고 깨달으며, 당시의 층차에서 조금 이해가 된 것 같아야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책에서 제기한 모든 문제, 모든 구절, 모든 장을 다 이해하고 싶었지만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인 뜻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어떻게 수련해야 하는지를 지도하는 더 깊은 함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방금 ‘전법륜’의 ‘반수(返修)와 차공(借功)’을 읽었을 때는 단지 기공의 두 가지 수련 방식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공(功)을 얻고 나중에 어떻게 공능이 없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깊이 학습하면서 사부님께서 이 이야기를 빌려 우리가 어떻게 명예욕과 금전욕을 없애야 하는지 지도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법에 비추어 자신을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명예욕: 누군가에게 승복하지 못하고 남이 자신을 지적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는가?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가? 금전욕: 남이 내게 물건을 줄 때 받지 않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이 자신에게 어떤 물건을 줄 때 원치 않고 거절하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결국 한번은 한 수련생이 제게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생선 통조림 몇 개를 줬습니다. 제가 한 번 거절했지만 그 수련생이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니 도와주는 셈 치고 먹으라고 해서 저는 더 거절하기 미안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도 누군가 제게 부서진 두부 한 모를 주어 거절하기 미안해 받은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누군가 제게 ‘왜 남의 반찬을 가져왔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공 알람이 울

렸습니다.

수련은 매우 엄숙해 매 걸음마다 신께서 유심히 지켜보십니다. 이후에 저는 돈을 조금 주고 그녀의 생선 통조림을 산 것으로 족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야 저는 전체적인 수련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에는 아직도 무한한 함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 현재 층차에서 수련에 대해 조금 체득한 바입니다.

우선 법을 통해, 생명에 사심이 생겨 법에서 벗어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떨어져 내려와 인류라는 층차까지 떨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휘멸돼야 마땅하지만 대각자가 자비심으로 이 생명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 인류 사회를 개창했습니다. 이 환경은 고달프고 미혹되어 있는데, 이 고달프고 미혹된 환경 속에서 이곳의 생명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반본귀진(返本歸眞, 선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곳 생명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업력이 너무 크다면 결국 철저히 휘멸돼 형신전멸(形神全滅)될 것입니다. 대법이 널리 전해져 생명들이 대법을 접하고 사람으로 사는 목적이 반본귀진임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자신을 잘 닦아야 할까요?

1) 경건

우선은 경건함입니다. 우리를 제도해 주시는 신에 대한 절대적인 경건함과 100%의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수련을 지도해 줄 분이 없다면 어떻게 수련하겠습니까? 어디를 향해 수련하겠습니까? 우리의 업력을 줄여줄 분이 없다면 업력이 산과 같은 우리가 어

떻게 수련해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신이 없다면 생생세세 빚진 업보에 마귀가 목숨을 앗아가려 할 때 어떻게 갚겠습니까? 속인의 나쁜 사상, 각종 나쁜 관념, 칠정육욕을 속인인 당신이 무슨 능력으로 없앨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것에 이끌려 지옥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당신을 위해 공을 연화(演化)시켜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제도하시는 사부님과 대법에 절대적으로 경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수련할 기회가 있고, 어떻게 수련하는지 알며, 높은 층차로 수련해 올라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2)진(眞)을 수련하다(반본귀진)

법을 통해 우리는 사람에게 사상이 있고 관념이 있으며 사상업력이 있고 원신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불성과 선한 면이 있고 마성과 악한 면도 있습니다.

수련 과정에서 순수하고 선량한 선천의 자신을 되찾고 나쁜 사상, 관념, 업력을 배척해야 합니다. 평소에 ‘主意識(주이스)가 강해야 한다’와 ‘불성(佛性)’을 자주 외워 사람의 주의식을 강화하고, 법의 위력으로 나쁜 사상, 관념, 나쁜 사상업력을 정화하며 동시에 정념으로 나쁜 생각과 나쁜 관념을 제거해야 합니다.

3) 대자비를 수련하다

우리는 사람에게 사상이 있고 육신이 있으며, 육신이 있으면 칠정육욕과 나쁜 집착심이 있어 명예(名), 이익(利), 색욕(色), 분노(氣) 등에 집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을 통해 정(情)에서 벗어나 자비가 생기며 칠정육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에는 사랑과 원한이 있

는데 인지상정에서의 사랑이 비록 좋은 것이라 해도 조건이 따릅니다. ‘나’와 관련되어야만 사랑하기 때문에 사심이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반면에 수련을 통해 닦아낸 넓고 큰 자비는 무조건적이며 누구에게나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수련 과정에서 정을 내려놓고 칠정육욕을 버려야만 대자비를 수련해 낼 수 있습니다.

선을 수련해 자비가 생기게 하고, 착실한 수련 속에서 마성을 억제하며 쟁투, 원망, 질투, 악행, 악념을 없애고 마음속의 선을 지켜야 합니다!

정에는 또한 원한이 있는데, 원한도 악한 것으로 마성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 수련 중에 선을 닦아 모든 일에서 남에게 선하게 대하고 자비롭고 상서로운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질투심을 없애는 법리와 정의 고비를 넘는 법리를 자주 외워 법의 크나큰 법력 속에서 정욕을 정화해야 합니다.

4) 인(忍)을 수련하다[대인지심(大忍之心)을 수련]

법을 통해 사람은 육신, 사상, 원신(元神) 외에도 덕(德)과 업력이 있으며, 한 사람의 불행과 시련은 바로 업력이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이 있으면 시련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고통이 있습니다. 수련 속에서 고생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고생하면 업을 소멸할 수 있고 고통 속에서 수련하는 마음을 굳게 지키며, 시련 속에서 업력을 덕으로 전환시킵니다. 가부좌를 할 때 다들 이 방면의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고통 속에서 수련의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해이해져 안일함을 추구하며 다리를 내려놓으면 업을 소멸할 수 없습니다. 심성 제고 방면에서도 같은 이치여서, 만약 고생하려 하지 않는다면 고비를 넘기 매우 어렵습니다.

5) 마음을 바르게 하다

법에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덕과 업력도 있음을 알려줍니다. 업이 곧 시련인데, 수련에서의 시련은 대략 세 가지 표현 형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심성적인 마찰, 신체적인 불편함 등 병과 같은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법에 대해 확고한지 시험하는 또 다른 형식이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신을 진정한 수련인으로 여기면 사부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재해 주실 것입니다. 굳게 대법을 수련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만 우리를 제도하시는 사부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고비를 넘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6) 착실한 수련[實修]

저는 수련에 들어선 후 법을 통해 수많은 천기와 수련의 이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련자로서 ‘진선인(眞·善·忍)’ 법리에 따라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하고 실천하며 사람의 칠정육욕, 명예, 이익, 분노, 색욕, 정을 버려야 합니다.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착실히 수련해 없애고 심성을 높이며 명백하게 자신을 수련해 자신의 공을 자라게 함으로써 마침내 개공개오(開功開悟)에 이르러 신을 향해 나아갑니다!

안으로 닦기: 평소에 문제에 부딪히면 저는 대부분 안으로 찾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하거나 이 자아를 직접 건드릴 때가 바로 직접 안으로 찾을 기회이며, 그 후 제 어느 방면의 사람 마음과 집착을 닦아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소멸해 그것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심성(心性) 일기 쓰기: 만약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미처 안으

로 찾지 못했다면 저녁이나 차분해졌을 때 심성 일기를 씁니다. 그날 보거나 들은 일들을 찾아보고 저를 어느 방면에서 제고하게 하는지, 혹은 어느 방면의 집착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살펴봅니다. 흔히 적지 않은 수확이 있습니다.

미리 착실히 수련해 법 속에서 심신을 정화하기: 어떤 집착은 뿌리 깊고 매우 강렬한데, 저는 그것에 대응하는 법을 반복해서 외위 법 속에서 그것을 정화하고 전부 소멸해 버리는 방식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 색욕, 질투, 강한 사상업력, 정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매일 각각의 집착에 대해 30분 이상 시간을 들여 해당하는 설법을 외웁니다.

착실히 수련하지 않으면: 만약 어떤 사람이 수련에서 착실히 닦지 않는다면 갖가지 시련을 초래할 것입니다. 추구하는 마음을 품으면 법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갈등이 닦했을 때 심성을 높이지 않고 속인의 옳고 그름에 빠지거나, 심지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사부님을 원망하고 법을 원망한다면 끝없이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더 큰 시련을 초래하고, 마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고비가 산처럼 막아섭니다. 마음에 집착이 있어 대법 수련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야말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철저히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만약 거만하고 오만해 마귀가 되어 사부님을 공경하지 않고 법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미 마도(魔道)에 들어선 것이니 철저히 망가질 것입니다!

3. 반(反)박해 법리에 대한 깨달음

2017년 어느 날, 저도 수련한 지 7년이 됐는데, 명혜망에서 사악이 백 가지 흑형으로 대법 수련인을 괴롭힌다는 기사를 보고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혹할 수 있는지,

진선인 기준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인데, 중공 악당이 어찌 이토록 나쁠 수 있는지, 박해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불법(佛法)은 무변(無邊)한데 이를 타파할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그 후 저는 대법서적을 펴서 법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어서 보게 된 법리가 전부 관련 박해를 타파하는 법리였습니다. 어떤 공능으로 무슨 박해를 타파하는지, 어떤 예시를 통해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해야 해소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법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도해 줍니다. 정말 전부 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악의 박해를 타파하려면 우리는 우선 진정으로 법에서 법을 인식하고 사람의 관념에서 벗어나 법리로 자신을 지도해야 합니다. 사부님이 계시고 법이 있으니 그 위력은 무궁하며 사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사부님께서 책에서 말씀하신 것이 법이고 진선인이 법이며 또한 책의 모든 글자가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드신 예시도 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신 이야기도 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속인의 관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사부님께서 책에서 드신 수련생의 수련 예시나 이야기가 어떻게 법이 될 수 있는가, 대법서적의 글자가 다른 책의 종이에 적힌 글자와 비슷한데 어떻게 여기서는 법이 되는가 하는 관념 말입니다.

속인의 이런 관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 수련생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사부님을 생각하고 대법의 그 한 구절 법을 떠올려 확실하게 위험을 해소시켰는데, 이런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비록 대법서적의 글자와 속인 책의 글자가 거의 똑같이 생겼어도 그

배후의 함의는 다릅니다. 우리 사부님께서서는 각자(覺者)이시자 창세주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곧 법이고, 법은 위력이 있어 신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대법서적에서 말씀하신 수련생의 예시나 이야기, 각종 공능이라도 당신이 깨닫기만 하면 법의 위력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며 사악은 작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돌이켜 대법서적에서 말씀하신 이야기, 공능, 예시를 다시 보면 바로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공을 전수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진법(眞法)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누가 깨달으면 누가 얻는다”(전법륜)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무조건적으로 안으로 찾고 착실하게 수련해야만 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공부만 하고 착실하게 수련하지 않으며 속인의 관념으로 법공부를 하면 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시간을 다그쳐 착실히 수련합시다. 이 만고의 기회와 인연을 놓치지 맙시다!



▲ 7월 4일,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이했다. 2백 명에 가까운 파룬궁수련자로 구성된 천국악단과 요고(腰鼓)팀은 폭염을 무릅쓰고 국회의사당 인근 현장에서 공연을 펼쳐, 환영을 받았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59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373만 3467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